

“불교적 구원, 개인에 국한”... 삐뚤어진 편견 시작

불교로 읽는 古典

막스 베버의 <힌두교와 불교>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는 현대 사회과학의 토대를 구축한 것으로 평가되는 '지적 거대 산맥'이다. 그는 근대사 회론, 사회과학방법론, 법사회학, 지배사회 학, 경제사회학, 종교사회학, 심지어 음악 사회학 등 인간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탁월한 저술을 남겼고 그 모든 것이 이른바 그 분야의 '고전'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혹은 그렇기 때문에 한정된 지면에서 베버의 고전을 모두 소개하고 해석을 가 하는 일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해서, 여기에서는 베버의 종교사회학의 업적들 중에서도 특히 베버의 불교연구에 해당하는 <힌두교와 불교>의 불교 부분을 소개하고 인간의 평가를 덧붙이고자 한다. 그러나 그 의의가 가벼운 것은 결코 아니다. 이것만으로도 베버의 <힌두교와 불교>뿐만 아니라 베버의 동양사회론, 나아가 베버의 종교사 회학 일반 및 명사에 대한 맛보기는 가능 하기 때문이다.

그럼, 베버가 왜 그리고 어떤 방법론에 의해 <힌두교와 불교>란 저술을 썼는지를 알아보는 것으로 시작하자. 무달할 나위도 없이 베버 사회학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은 근대 서구의 합리화 과정의 산물인 근대 자본주의의 기원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문제를 해명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베버는 이를 해명하기 위해 단지 근대사회만을 고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는 고대사회와 중세 사회에 대해서도 폭넓은 관심을 가졌 으며, 지리적으로는 전세계의 모든 문명권 에로 관심의 폭을 확대해 나가면서 철저한 비교연구를 수행하였다. <힌두교와 불교> 는 그 보편사적 기획의 일부이며, 그러한 점에서 일종의 '허수아비'다.

베버는 <힌두교와 불교>뿐만 아니라 <유교와 도교>에서, '왜 동양사회는 서구사회 가 보여준 그런 방식으로 합리적인 생활양 식의 창출의 발전 방향을 취하지 못했는 가?' 라고 묻고, 마르크스와 달리 그 해답 을 동양의 종교와 연관시켜서 풀어내었다. 그 불교부분의 핵심 내용을 그 저작의 내재적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힌두교와 불교>에서 베버는 약 1/3의 분량을 할애하여 불교 전반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무달할 나위도 없이 베버는

고대불교로부터 논의를 시작하는데, 그는 고대불교를 두 가지 차별성, 즉 정통파인 힌두교와의 차별성과 대승불교와의 차별 성 속에서 논의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고대 불교란 표현이 대승불교와의 차별성을 전 제한 표현이며, "고대 불교는 아트만이나 '개체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거부하는 입 장에서 있었다"는 진술은 정통파인 힌두 교와의 차별성을 전제한 표현이다. 그러나 베버는 구원론의 차원에서 보면 고대불교 의 구원론은 대승불교의 구원론뿐만 아니 라 힌두교의 그것과도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러한 구원의 상태(certitudo salutis) 즉, 구원받은 자가 현세에서 누려야 할 평안 의 향유야말로 인도의 종교가 추구하는 심 리적 상태이다. 마치 지반 무크티 (jivanmukti-현세해탈)처럼, 인도의 성자 들은 지금 여기에서조차(even here and now) '세상을 초탈한 삶의 축복' (the bliss of the world-detached life)을 향유하고 자 할 것이다. 고대불교 특유의 최후의 목 표달성도 바로 이것 그리고 바로 이 목표만 을 추구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 실을 명심하는 것이야말로 고대불교를 평 가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한마디로 '행복의 신성론'란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구원론이 절대성에 의한 구원 추구(현세거부)와는 달리 불교 특유의 '현세거부의 윤리'로 귀결된다는 것이 다.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환상의 근본원 인은 소멸되지 않은 불멸의 단위로서의 영 혼에 대한 믿음이다. 바로 이러한 불교적 입장 때문에, 이승뿐만 아니라 저승의 삶에 대한 믿음과 관련된 바램, 희망 그리고 모 든 혹은 그 어떤 좋아하는 것 등에 집착하 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일 뿐이다. 이러한 모든 것은 허망하기 짝이 없는 무에 집착하 는 것이다. 따라서 불교에서 추구된 것은 영원한 삶을 지향하는 구원이 아니라 영원 히 지속되는 죽음의 평안함을 지향하는 구 원이었다".

베버에 따르면 이러한 불교의 구원론은 개인교의 그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불교는 통상적인 구원 개념을 부정하였 다. 의도성의 윤리에 기초한 죄의 개념은 그것이 힌두교에 부적절했던 것처럼 불교 에서도 적절한 것이 결코 아니다. 죄가 구 원을 가로막는 전부는 아니었다. 궁극적으 로 구원을 방해하는 힘은 죄에 있지 않았 다. '악'이 아니라 무성한 삶 그 자체가 구 원의 장애물이었다".

이러한 구원론으로 말미암아 불교에서 구원의 수단은 지혜일 수밖에 없다고 베버 는 지적한다. "불교에서도 구원은 지혜를 통해서 확보된다. 이것이 세속이나 천국의 일 혹은 사물(things)에 대한 폭넓은 지식 이란 의미가 아님은 물론이다. 오히려 그와



독일 근대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 1864~1920)의 모습. 그는 종교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를 사회학으로 연결한 지성이지만,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특히 서구의 근대적 합리성을 창출 하지 못한 이유를 동양의 종교성에서 찾았고, 이는 뿌리 깊은 오리엔탈리즘으로 이어졌다.

서구의 편견 '오리엔탈리즘' 어떻게 시작됐나

'근대 자본주의의 기원' 주제 동양 종교들 비교 연구

부재적 잣대의 '허수아비 불교론'... 부정 문화론 귀결

반대로 초기 불교는 바로 이 영역에 대한 지식욕에 대한 극도의 억제를 요구하고 있 었다. 오히려 구원을 가져다주는 '지혜'는 고(苦)의 본질(nature), 기원(origin), 조건 들(conditions), 그리고 그 파괴의 수단들 (means of destroying suffering)이란 네 가지 위대한 진리(四聖諦)를 실천함으로써 비로소 얻게 되는 깨달음이다. (Max Weber, 1958:209)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 해서는 명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붓 다는 아트만(atman)을 지적 구성물 (intellectualistic constructions)로 보 지 않고 주체의 자원론적 구성물(a

voluntaristic construction)로 간주하 였다. 거기에는 '에고(ego)도 없고 '세 계(world)도 없으며, 오직 모든 종류의 감각들, 의지적 노력들, 그리고 표상들- 이들이 함께 모여 '실재(reality)'를 구성 한다 - 등의 흐름만이 존재할 뿐이다. 경 험되어지는 개개의 구성요소들도 '하나 의 통일성'속으로 결합되어 질뿐이다. '개인성(individuality)'도 마찬가지로 다. 따라서 개인성을 지명하는 의지나 욕 망은 무지와 동일시된다. 그러나 깨달음 은 신의 은총의 선물이 아니라 끊임없는 명상의 댓가일 뿐이다".

베버는 이러한 불교적 구원론이야말로

"이웃의 복지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개인 적 구원'으로 특징지어지며 그러한 점에서 거의 아무런 사회적 가치를 지니지 않는 것 으로 평가한다. "사회적 책임의 감정은 불 교적 구원의 교리와는 거리가 멀 수밖에 없 다. 또한 독특한 유형의 불교적 이타주의인 자비조차도 단지 삶의 수레바퀴 속에서 살 아가는 모든 인간의 생존투쟁을 허망하게 바라보고 있을 때 감성이 통과하는(스쳐지 나가는) 단계를 중의 하나일 뿐이고, 집진 적인 지적 깨달음의 조짐이기는 하지만 그 러나 적극적인 형제애(active brother- liness)의 표현은 아니다. 합리적 행위의 세 계와 아라한(이상)을 연결할 다리가 없다. 또한 거기에는 적극적인 의미의 '사회적' 행위로 이어질 통로도 없다. 구원은 절대적 으로 자력적인 개인의 개인적 수행이다. 아 무도, 특히나 그 어떤 사회적 공동체도 그 를 도와줄 수가 없다. 모든 신비주의의 반 사회적 특성이 바로 여기에서 그 절정에 도 달한다."

게다가 베버는 이러한 구원론조차도 계 층적 한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한다. "구원의 전망을 세속으로부터 초탈한 사람 (출가자:승려)에게 국한시켰던 것은 인도의 전통과 일치한다. 그러나 불교의 경우 그 이유는 불교의 구원 교리의 독특한 본질에 서 유래한 것이다. 영원히 윤회하는 개인성 의 끝없는 투쟁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 어서 영원한 적정상태에 도달하기 위해서 는 자기 자신을 불완전한 세계와 생존투쟁 에 연결시키는 모든 '갈애'를 포기하는 길 밖에 없었다. 따라서 매우 자연스럽게도 그러한 구원상태는 '머무름 곳 없는(無住)'의 신비집단, 즉 교리에 따르면 만행하는 제자 들(후에 비구라 불렸던 사람들에게만 허용 되었다. 교리에 따르면 재가자집단은 은총 의 상태를 열망하는 불제자들에게 보시를 지속할 목적으로만 존재하였다".

베버에 따르면, 바로 이러한 계층적 한계 성 때문에 평신도들은 주술에 의존할 수밖 에 없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고대불교가 평신도들의 종교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 한 대승불교로 전형을 이룬 후에도 지속되 었다. 그 증거로 베버는 '대승불교의 설립 자'이라고 간주한 용수(Nagarjuna)와 '대 승불교의 마지막 보살'이라고 칭한 세친 (Vasubandhu)의 사례를 들고 있다. 베버 는 용수가 수행과 지혜로 공(空)을 깨달은 자에게 주술적 힘이 있음을 인정하였다 는 점을 들어, 그리고 그 후 400년 뒤 세친도 삼매의 경지에 도달하면 기적을 발휘할 수 있음을 인정하였다는 점을 들어, 대승불교 조차도 주술성을 극복하지 못하였다고 주 장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아시아적 종 교성이 낳은 사회적 결과다. 베버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한 지혜가 신비적인 특

성을 떨쳐버리지 못한다는 사실은 두 가지 중요한 결과는 낳는다. 첫째, 신비적 초영 지를 갖는 능력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는 허 용되지 않은 카리스마이기 때문에, 구원귀 족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둘째, 비 사회적이고 비정치적인 특성을 수반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렇듯 초세속화된 구원론은 세속적인 실천 활동과 분리되어 버렸고, 그 빈 공간에 들어 선 지극히 반-합리적인 보 편적 마술의 세계(most highly anti-rational world of universal magic)가 일상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미쳤다. 그 세 계로부터는 그 어떤 합리적인 세속내적 생활 방식을 도출할 방법이 없었다. 문맹 대중들 뿐만 아니라 교양 있는 아사아인들조차도 그러한 (마술적) 수단들을 활용하여 일상생 활을 지배하려고 하였다. 이러한 마술의 정 원으로부터는 그 어떤 합리적인 실천윤리 나 생활방법도 도출될 수 없었다."

아직까지도 불교에 대한 사회학적 저술 이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베버의 <힌 두교와 불교>는 불교에 대한 기념비적인 사회학적 저술임에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동시에 명백한 점은, 베버의 비교연 구의 잣대, 곧 <힌두교와 불교>를 비판하는 잣대가 절대신(神)에 의한 구원을 전제하는 신교윤리 특유의 종교성에서 유래되었다 는 점에서 '동양사회의 부재적 잣대'였고, 그 잣대로 해석된 베버의 동양사회론은 부 정적인 결론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서구적 의미의 합리화가 보편자 로 설정되는 순간 동양사회가 취한 발전방 향은 자동적으로 특수자로 전락하게 되고, 인간 자신의 내부에 비인격적인 초월자인 불성(佛性)이나 천성(天性)을 전제하고 그 것과의 합일을 추구하는 동양의 종교성은 서구적 의미의 합리성으로는 도저히 설명 할 수 없는 것 즉 신비주의적인 것으로 해 석된다.

베버가 서구의 근대적 합리성을 저지한 결정적 요인으로 지목한 '주술의 정원'은 그렇게 탄생한 것이다. 게다가 베버는 매우 특이한 조건들의 결합(highly particular historical constellations)에 의해 탄생한 서구 사회의 예외적인 발전 경로와 그 역사 적 의의를 해명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불가 피하게도 그의 비서구연구는 의식적으로 서구문화와 대비되는 요소들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힌두교와 불교>야말로 부재적 잣 대(신교윤리의 종교성이란 잣대)로 재구성 된 '허수아비' 불교론인 동시에 동양사회 의 자본주의의 불임(不肥)을 입증하는 동양사 회론이라 할 수 있다. 그 결과, 그의 동양사 회론은 결여된 것을 탐색하는 부정적 문화 관으로 귀결되었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 롭지 않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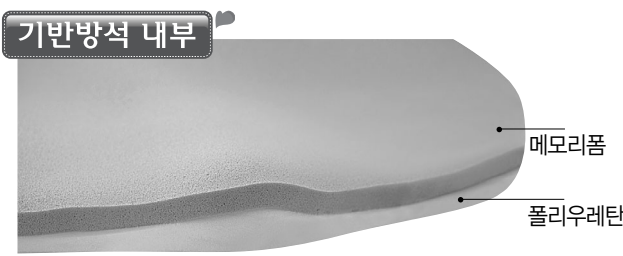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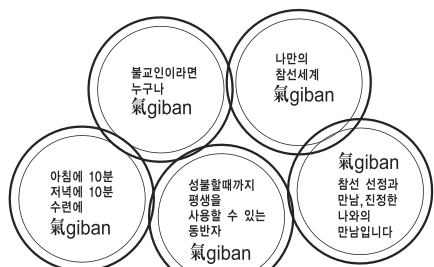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당은 산소제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뒷면) 8cm]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뚝이 늘 빠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www.hyunbulshop.com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석외전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